

도,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부담 줄인다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 1.05%→2.5% 인상
채권즉시매도수수료 10% 이하로… 이자 손실 완화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 의무매입 면제

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현행 1.05%에서 2.5%로 연 1.45% 인상하고 3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때 일정비용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로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지역

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

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채권 표면금리가 1.45% 인상되면 11월 평균 17%대인 채권즉시매도수수료가 10% 아래로 낮아지게 되며 채권 100만원 당 이자 7만원 가량을 경북도가 부담하는 셈이다.

또 경북도는 내년 3월부터 1000~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1598cc, 2000만원의 소형자동차 구매 시 올해 12월부터 시행한 개정조례에 따라 기존대비 3분의 1 수준인 4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지만 추가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3월부터는 완전히 면제된다.

행안부는 내년 3월부터 지자체와의 2000만원 미만 계약 시에도 지역개발



칠곡 인평리 달제 저수지 '석양 명소'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칠곡군 복삼을 인평리 달제 저수지 제방 뚝에 있는 고목 뒤로 지는 석양을 한 가족이 감상하고 있다. 달바꿈으로 불리는 달제에는 최근 석양 명소로 뉴스1

채권을 면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인데 경북도는 자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이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

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계층의 체감효과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굿바이'… 계묘년 새해 '해룡일출축제'와 힘차게!

경주시 감포 문무대왕릉 일원
트롯 가수 공연·카운트다운 등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을 이틀을 남겨두고 있다.

경상투데이는 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일출을 바라보며 만사형통을 기원하고자 하는 경북 도민과 관광객들의 염원을 담아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릉 일원에서 해룡일출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여덟번째를 맞이하는 '해룡일출축제' 행사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문무대왕암 특설무대에서 열

린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상투데이가 주관하는 '해룡일출축제'는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돼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긴 문무대왕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해룡이 된 왕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계묘년 새해를 출발하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염원을 담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한다.

31일 밤 8시부터 열리는 전야제 행사에서는 7080 라이브 콘서트를 시작으로 도민들의 듣고 싶은 음악을 들려주는 추억의 DJ, 정귀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트롯 가수 오송대씨와 태자, 사랑이, 김이정이 무대에 올라 임

인년을 보내는 아쉬움을 노래에 담아 도민들과 관광객들을 위로한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 함께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원을 말해봐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도 진행한다.

특히 밤 11시 55분부터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을 다 함께 외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

이어 새해 첫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시작으로 기관장들의 새해 인사가 특설무대에 마련된 화면을 통해 영상으로 송출된다.

일출이 시작되기 직전인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는 새 아침을 깨우는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기원제를 올린다.

특히 일출이 예상되는 오전 7시 30분부터는 대불을 올려 문무왕을 부르는 의식을 시작으로 문무대왕릉을 찾아 오르는 용의 비상을 연출할 계획이다.

이날 강풍이 불게 되면 아쉽지만 해변에 비치한 용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승협 경상투데이 대표는 "열심히 살아온 지난해의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시 시작하는 도전과 새로운 앞날을 계획하는 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 희망을 갖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축언하며 "토끼는 다산, 성장, 풍요, 행운을 상징하며 겁이 많고 잘 놀라고 예민한 동물로 옛날 동양에서는 달 속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토끼 해에 태어난 사람은 풍성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알려져 있으며 감수성이 뛰어나고 품위 있고 재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 전쟁 등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충격에 돈 걱정이 필요 없는 대박 나는데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영난 겪는 中企에 단비

도, 설 맞이 1200억 운전자금 지원
1월 3일~16일 시군청 방문 등 신청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 한도 3억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금리 및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원(부)자재구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융자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상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www.gfund.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추천 결과는 경북경제진흥원의 서류심사 후 내년 1월 5일부터 기업과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융자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설 연휴가 끝나는 1월 27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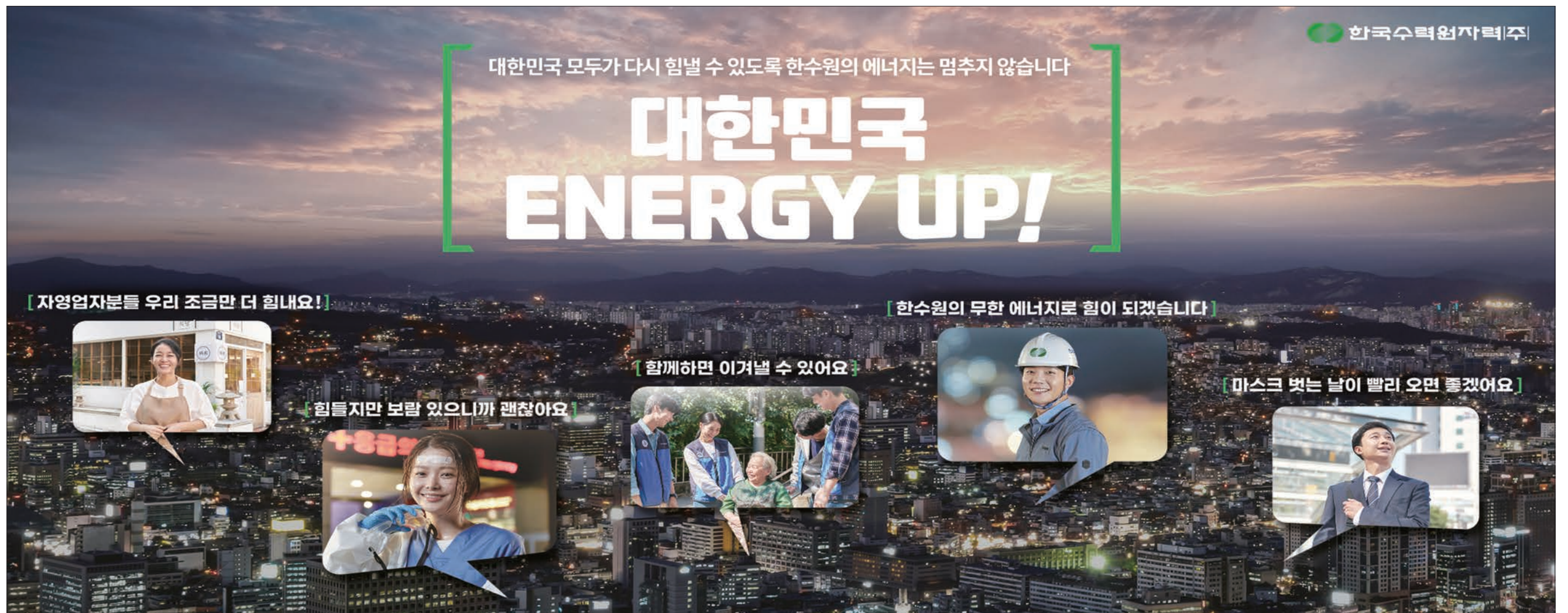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14개 사)을 통해 융자대출 시 경북도에서는 대출이자에 대해 1년간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경북 프라이드 기업, 향토뿌리기업, 경북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등 도에서 지정된 27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분야별정보/경제/중소기업지원정보)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경북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www.gfund.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도와 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안동, 국비 8천억 확보… “시 승격 60주년, 대전환의 초석 마련”

신규 174억, 국회증액 337억 등 점촌안동 단선철도 사업비까지 신속·탄탄한 공조 체제의 성과 미래 100년 대전환 교두보 마련

지난 24일 2023년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안동시가 국비 7940억원을 확보했다.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대전환의 발전을 이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동지역 국가 예산은 철도·국도 등 국가사업 4234억원을 비롯해 신규사업 174억원과 내년도 안동시 본예산에 반

영된 국고보조금 3403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노력을 통해 국회에서 증액한 신규사업은 안동 신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놓았다는 평이다. 지난 10년간 공들였던 점촌~안동 간 단선철도 건설 사업비(3억원)와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기관 설립(5억원), 신기술 백신공정기술 기반조성(10억원), 헴프 산업클러스터(12억5000만원) 등은 안동의 새로운 신산업 지도를 그릴 만한 사업들이다.

제3차에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점촌~안동 간 단선철도 건설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수도권

과 거리 단축 등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과 궤를 함께한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기관 설립 5억원도 안동의 풍부한 전통콘텐츠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K-콘텐츠 산업 거점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라 할 수 있다.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 기반조성 10억원과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12억5000만원도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 백신 및 헴프산업 메카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안동보훈회관 건립(2억5000만원)과 △안동 생명공 가공공장 확장 건립(20억원) △이종린의병대장 체험학습관

건립 △풍천면과 풍산을 수리지구 하수도 정비사업비(36억3000만원)도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다.

안동 중심의 SOC사업도 활기를 띤다. 서의문에서 도청신도시 입구를 연결하는 풍산~서후 간 국도34호선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3억원이 반영돼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된다. 서후면 교리에서 송천동을 연결하는 웅상~교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도 587억40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와룡~법전 국도개량(204억8000만원)과 포항~안동 국도확장(547억7000만원), 안동~영덕 간 국도선형개량(321억5000만원) 등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에 힘을 보탠다. 또한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사업비 2572억원도 수도권뿐 아니라 남부권과의 교통망도 한층 개선된다.

이 밖에 9월 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현안사업이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대1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5억원)과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17억5000만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69억8000만원), 가족분노 공공처리시설 설치(34억10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12억1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14억7000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56억원), 웅상동 도시재생뉴딜사업(24억3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시는 오는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지난 4월과 9월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지역정치권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 체제를 다져왔다.

권기창 시장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안동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며 “오는 2023년을 100년 안동 발전의 기틀을 세울 원년으로 삼아 정부정책과 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안동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글로벌 1위 철강社 자리 굳건… 서울 아니어도 성장 가능해”

포항시의회, 포스코·미래기술연구원과 포항이전 상생협력 특위 개최 포스코 측 청취 후 “회장 면담 성사, 미래먹거리 사업 투자” 강력 촉구

포항시의회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위원회를 긴급히 열어 포스코측으로부터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존 합의서 이행의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스코 측은 지난 2월 작성한 합의서 내용 중 △첫번째 항목인 본사 이전은 내년 2월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결정된다면 3월 주주총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번째 항목인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치 또한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세번째 항목인 지역투자는 확정된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포스코 측은 “상생협력사업의 경우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피해를 입어 피해복구가 완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최고경영자의 답변만이 의미가 있기에 오늘 설명회

는 큰 의미가 없다”며 “최정우 회장과 직접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단발성 투자가 아닌 미래먹거리 신성장 산업의 기틀이 될 투자를 계획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 등 애로사항을 내세우지만 포스코는 늘 포항에 있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1위의 글로벌 철강회사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면서 “서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원들은 “국민기업으로 소명

을 다해 신산업 또한 포항에서 함께 키워나가자”고 적극 강조했다.

김일만 특위 위원장은 “태풍 힌남노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포항시민을 대신해 기원한다”면서 “오늘 설명회가 다소 의전에 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자와의 소통을 여러번의 시도에도 성사되지 않은 점을 상기한다면 오늘 자리가 소통의 단초라 여겨져 의미가 없지 않다고 본다”고 평했다. “오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명확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상호 간의 소통과 협의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현대 기자cyt4568@naver.com

“매서운 겨울 추위, 사랑으로 따뜻한 온기 나눔”



상주시의회 의원들과 사무국직원들은 27일 겨울철 난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저소득가정에 연탄을 후원해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저소득가정 10가구에 500장씩(400만원 상당) 총 50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안경숙 의장은 앞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더 청렴한 봉화군의의회로”

법정교육·선진지 우수사례 견학

봉화군의의회는 지난 26일과 27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1일 특강 의정연수 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지역내 청소년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하종삼 전문강사의 반부패 청렴교육과 홍진옥 전문강사의 4대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영덕, 상주, 영주를 방문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법·청탁금지법의 이해, 묵인심사로 보는 청렴의 정의와 공직자 윤리, 성인지 감수성, 4대폭력, 젠더폭력 예방 실천전략 등이다.



이어서 영덕군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영주시 강바람농이터 견학을 통해 다

양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김상희 의장은 “제9대 봉화군의의회는 전 의원이 합심해 봉화군의 지역발전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더 큰 책임감으로 민생의 소리 청취할 것”

박미옥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

박미옥 경산시의회 의원은 29일 여의도 정책연구원에서 수여하는 ‘2022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제8대 후반기 경산시의회 부의장을 역임, 현재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주요 의정활동으로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대표 발의, 42건을 공동 발의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힘써왔으며 특히 지역 재래시장의 현대화, 경산시

립미술관 건립 촉구, 지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개설 및 확충,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지역 문화 융성에 적극 노력해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현장에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정보산업의 핵심기술!

(주)대신측량기술이 이끌어 갑니다!

(주)대신측량기술
DAESHIN SURVEY ENGINEERING CO., LTD

본 사 경북 포항시북구 중흥로267번길 16
TEL : (054)283-4870~1
FAX : (054)283-9915

경주시사 경북 경주시 태종로 685번길 31 2층
TEL : (054)624-2225
FAX : (054)771-2251

지적사업본부 본부장

오 연 진

HP : 010-3528-1335

E-mail : yunjin1335@naver.com

- ◆산업단지 확정측량
- ◆구획정리 사업지구확정측량
- ◆주택단지(아파트) 확정측량
- 및 준공현황측량
- ◆구획정리 사업지구 분할 및 경계복원 측량
- ◆골프장 현황 측량 및 확정 측량



www.dssurvey.net

경북도 동부청사, 동해 바다시대 컨트론타워

지속가능한 환동해 발전 위해
2023년 미래 먹거리 신규 사업
국비 196억2000만원 대거 확보
내년 하반기에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이전

경북도 동부청사가 환동해 발전의 견인차 역할 톡톡히 해내고 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동부청사는 지속가능한 환동해 발전을 위해 내년 미래 먹거리 신규 사업에 국비 196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그간 경북도는 각 분야별로 미래먹거리 신규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신규 사업 발굴 워크숍 등을 10여 차례 개최하고 관련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연중 수시 방문해 왔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 사업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왔다. 내년 미래먹거리 사업 국비확보 현황으로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1억원),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31억1000만원), 융융염원자로 기술개발 사업 (105억원) 등 SMR분야 137억 1000만원이다. 또 환동해 심해과학 연구센터 설립 (5억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5억원),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

터 설립 (3억1000만원), 독도 현지조사 연구 활성화 및 전문화 (5억원) 등 해양 과학분야 18억1000만원 이다. 아울러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10억원),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 자원보전 사업 (1억원) 등 수산분야 11억원과 국립선부 해양역사 기념공원 조성 (10억원), 감포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20억원) 등 레저분야 30억원 등 총 11개 사업에 196억 2000만원이다. 사업별로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사업은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내에 지난해 2025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 실험·교육용 원자로를 활용한 글로벌 원전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원전 대학원설립, 원자력 관련 학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캠퍼스 설립 상세 기획용역을 시행 할 계획 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은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내에 총 1551억원을 투입, 혁신형 i-SMR 요소 기술, 표준 (기본)설계 및 인허가를 위해 SMR 기자재 구축 및 R&D 연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비 31억 1000만원을 확보해 혁신형 SMR 개념 설계, 요소기술개발, 실험·검증 및 표준설계 등을 추진한다. 환동해 심해과학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오는 2023년부터 4년간 울진군과 함께 총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도 심해과학 R&D 연구거점을 조성을 위

해 연구지원 시설 구축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사업은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포항시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일원에 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블루카본 연구, 해조류 활용기술 상용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설립 사업은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내에 총 302억원을 투입해 통합 접촉제를 활용한 생체모사 소재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산학연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국비 2억원으로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내년도 국비 3억1000만원을 확보한 만큼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울릉도·독도 현지조사연구 활성화 및 전문화 사업은 매년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을 투입, 독도 해양생태 해설사 양성,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울릉도·독도 영토교육 및 생태 등 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영덕군 금호리 로하수 수산물품 농공단지 내에 총 380억을 투입해 스마트 수산가공 연구개발 지원, 기업역량 및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 706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내에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낙동강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립 선부 해양역사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국비 200억원을 투입, 상징타워, 해양역사 전시공간 및 교육시설 등 건립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행정기관인 선부를 세운 신라의 해양영토 수호 의지와 문무대왕의 해양 개척정신을 재조명하는 사업이다. 한편 현재 (구)용흥중학교를 임시청사로 사용 중인 경북도 동부청사는 내년 하반기에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동해바다와 경북을 비추는 등대 형상화해 건립 중인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앞으로 동부청사는 동해 바다시대 컨트론타워는 물론 북방경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대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시군 등 모두가 힘을 결과 많은 신규사업에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동해안 시대를 열어아 5만달러 시대가 가능하다. 그 중심에는 경북도 동부청사가 있다”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 특별한 성과 낸 ‘MVP 공무원’ 선발

이경현 도로철도와 주무관 MVP
영일만 횡단대교 정부예산 반영
SOC분야 국비 2조3878억 확보

경북도는 올 한해 도정 성과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MVP 1명과 시책유공 공무원 9명 등 총 10명을 올해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MVP 공무원으로 선정된 도로철도와 이경현 주무관은 10년을 넘게 끌었던 영일만횡단 고속도로를 대통령공약에 반영시키고 사업 추진 후 첫 정부예산 50억원을 비롯한 SOC분야 국비 2조 3878억원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또 중부선 문경-김천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원 및 성주-대구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기여해 경북의 지방시대 신성장 동력 확보에 공헌했다. 청년정책관실 이진희 주무관은 행안

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 선정돼 국비 18억원 확보와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 및 지역이 주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자연재난과 최동준 주무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된 태풍 힌남노의 신속한 대응·복구에 기여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1212억원 확보, 풍수해생활권 종합사업 국비 750억원 확보 등 기후변화위기 속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심경북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중소벤처기업과 변상철 주무관은 295억원 규모의 경북형 지역뉴딜 펀드를 조성하고 266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유지했다. 또 스타트업파크와 인큐베이팅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이디어가 산업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의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을 발굴·육성 기반을 다지는데 공헌했다. 4차산업기반과 손정민 사무관은 전

기자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받아 경북이 전국 최다 최초 4년 연속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되는데 기여했다. 문화유산과 류문규 연구관은 하회별신굿 탈놀이와 예천청단 놀음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내방가사와 삼국유사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공헌했다. 농업정책과 경주호 사무관은 농업대전환의 기반 마련을 위한 25개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산림자원과 김인규 주무관은 울진산불 등 대형 산불 발생 시 상황실에 상주하며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또 영주시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 조성 국비 12억원을 확보하고 산림소득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문임업인 3000여명의 소득향상 및 포플라 장학기금 운영을 통한 임업인 권익신장에 기여했다. 감염병관리과 이민자 사무관은 코로

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해 도내 51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431명의 의료인력을 지원했다. 농업기술원 신종희 연구사는 경상북도가 육성한 벼 신품종인 경북9호(가칭 다을), 경북13호(가칭 대향찰)를 육성했다. 이번에 선정된 MVP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며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는 민선8기가 출범한 뜻깊은 해로 모든 공직자들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뜻을 모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도의 모든 공직자는 경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경북 웰니스관광 참가자들 ‘대만족’

5개 거점시설 상품운영에 대한
효과·성과 측정 연구결과 발표
스트레스·수면의 질 개선 효과

경북도와 경북관광공사는 29일 '2022년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5개 거점시설의 상품운영에 대한 효과 및 성과 측정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로 지정받아 경북형 웰니스 관광을 집중 육성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결과로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번 연구는 경북웰니스관광 5개 거점시설인, 국립산림치유원 (영주),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영양), 인문힐링센터여명 (영덕),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화), 금강송에코리움(울진)에 참가한 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중에는 코로나19 극복에 고생한 경북 의료·방역 인력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형 웰니스 특별프로그램' 참가자 235명과 웰니스관광 일반참가자 412명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병철 교수)은 2022년 경북 웰니스 관광 상품의 참가자에 대한 효과 및 성과를 분석했고 참가 동기에 기반해 세분화된 시장과 차별화 전략을 도출해 제안했다.

조사결과 참가자들은 경북 웰니스관광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재참가 및 추천의도(5점척도 중 평균 4점이상)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웰니스 관광 주요효과를 참가전후로 나눠 조사한 참가자의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개선효과가 나타나 경북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의 긍정적 건강개선 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다. 스트레스는 의욕개선과 신경안화 측면에 가장 개선효과가 높았으며 수면의 질의 경우 전반적 수면상태 만족과 자고 나서의 개운함과 관련한 항목에서 가장 크게 개선효과를 보였다. 경북도는 이번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휴식·일상탈출, 자연친화경험, 특별한경험, 사회관계개선목적 등 다양한 동기요인에 기반해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상품 운영전략을 도출했다. 이를 통한 집단별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경북형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발굴해 경북의 웰니스 관광 중심지 위상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내년에는 바뀌는 웰니스관광 관련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만의 웰니스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화, 융복합화, 국제화를 중심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태풍 피해현장서 더 빛난 투철한 사명감

경북도, 힌남노 응급복구 힘쓴 3개 기관에 감사패
인력·장비 지원, 성금 기부로 따뜻한 온정 베풀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도청 동략관에서 열린 송년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응급복구에 크게 기여한 3개 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받은 기관은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다. 경북도는 지난 9월 포항과 경주를 강타한 힌남노 태풍으로 사상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태풍 힌남노로 국도 14호선, 지방도 945호선 등 52개 소 도로에 피해액 93억원, 복구액 501억원, 냉천, 남천 등 33개 하천에 피해액 672억원, 복구액 3072억원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도의 긴급 지원요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 지원반을 구성해 현장지휘자, 장비운영 등 인력 120여명을 투입해 토사가 덮인 포항 시내 도로 정비를 위해 살수차, 노면정소차, 양수기 등을 지원했다. 또 하천 냉천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포항제철소에도 준설차(버큘가) 등 장비 73대도 지원했다. 또한 도내 건설협회에서는 지역 내 회원사를 동원해 굴삭기, 덤프, 도저 등 600여대의 건설중장비를 긴급 지원해 피해복구 활동을 도왔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에서는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9400만원을 기부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 지원을 힘을 보태 준 한국도로공사와 도내 건설 관련 기업 대표 모든 분들께 도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지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았듯이 도에서도 기관에 힘이 되고 도움이 돼 줄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한울원전 3호기, 최장 연속운전 ‘신기록 달성’

국내 원전 중 최장기간 ‘4382일’
국내 최초 9주기 연속운전 기록
발전소 운영능력의 우수성 입증

한국표준형원전인 한울원전 3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지난 2008년 7월 25일부터 올해 12월 28일까지 국내 원전 최장기간 연속운전 신기록인 4382일의 무정지 연속운전(계획예방정비 기간 제외)을 기록했다.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 최초로 9주기 연속 무고장 운전(OCTF)을 기록한 것으로 최장 연속운전 일수(이전 한울원전 3호기 3885일)를 갱신함과 더불어 이전 월성원전 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kW급)가 보유한 8주기 연속 무고장 운전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주기 무고장 운전(OCTF)은 정비, 운전, 운영관리 능력 등 원전 운영의 안정성과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계획예방정비 완료 후 계통연결시점부터 다음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계통분리 시까지의 한주기 동안

발전소가 정지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표준형 원자로 중 만형 격인 한울원전 3호기는 국내 자립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으로 한울원전 3호기의 최장기 연속운

전 무고장 기록 달성은 전 세계에 우리 원자력발전소 운영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패거리라고 할 수 있다.

한울원전 3호기가 9주기 동안 생산한 누적전력량은 1095억kWh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약 2년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발전량을 타 발전원으로 대체시 유연탄은 9011만t, 석유는 7685만t 그리고 LNG는 3969만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 돼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 효과가 있다.

한울원전 3호기는 주요설비의 정비를 위해 28일 오전 10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약 46일간의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연료교체, 발전설비 점검 등을 수행해 원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에너지효율 향상·에너지복지 실현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안동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개인 주택에 자가용 태양광 3kW 설비 65가구, 지열 17.5kW 9가구를 지원했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5개소에 건물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태양광, 태양열 건조기를 보급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건물 5개소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시는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복지시설 고효율냉난방기 22개소 지원, 노인복지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1개소 지원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효율개선 및 고효율기기 지원으로 에너지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에너지비용 절감과 에너지자립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에너지복지실현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도, 내년부터 동물원 外 야생동물 전시 신고

현황 신고 시 2027년까지 유예

경북도는 29일 내년 1월 1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전시자의 경우 법 시행 전

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4일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전시자(동물원 제외)가 내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도 환경정책과(054-880-3522)로 신고하도록 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알릴 방침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추가접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이겨 내요” 대구, 60세 이상 추가접종 참여 ‘당부’ 감염취약시설 방역 지속 실시 등 진행


대구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서둘러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및 중증 위험 감소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후유증 예방효과도 있어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접종이 중요하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상황과 반복접종으로 인한 접종 피로도 상승,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일부에서 여전히 동절기 2가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2가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안전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재,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방문, 지역행사 연계 등 시민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대구시의사회의와 긴밀한 협력으로 1차 의료기관 진료 시 전문가를 통한 안전성과 효과성 안내 및 접종 독려에 힘쓰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시설별 공무원 1:1 전담제로 접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집중 관리기간 동안(2022년 11월 21일~12월 27일) 접종률이 저조한 시설 341개소에 구·군 부단체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접종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시설 방문접종을 통한 접종

**질병관리청**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꼭! 참여해주세요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은 감염 및 중증 위험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56% 감소

감염 위험 최대 56% 감소
~기존 백신 접종자 대비

83% 감소

입원 위험 최대 83% 감소
~기존 백신 접종자 대비

58% 감소

코로나19 후유증인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 58% 감소

1/10 이하

이상사례 신고률 ~기존 백신 대비 1/10 이하

접종대상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2세 이상 기초접종(1,2차) 완료자

백신종류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4종) **한이자 BA.4/5** **모리나 BA.4/5** **한이자 BA.1** **모리나 BA.1**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 제공으로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8일 기준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50.8%, 60세 이상 접종률 25.3%로 집중접종기간 전 접종률 대비 각각 4.8배, 2.2배 상승해 집중관리기간 중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기도 했다.

한편 7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아 지역의 치명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만큼 고령층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을 하고 더불어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검사 및 확진 시 먹는 치료제를 복용해 중증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구시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설 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집단발생에 대비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교육과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환 기자gst3000@naver.com

김천시,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김천시에서는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내 위탁의료기관과 연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대상포진은 수도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약해진 틈에 분포하는 신경절을 따라 붉은 반점, 수포, 농포 등 다양한 피부 병변과 신경통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평생 발병할 확률은 10~30%이며 면역력이 약해진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할 확률은 젊은 층에 비해 8~10배 정도 높다.

평생 1회 예방접종을 하면 발병률이 줄고 발병 후 통증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에 도입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

에서 이번엔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에 나선 것이다.

대상자는 내년 1월 9일부터(접종시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김천시 지역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예약 후 방문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접종가능 의료기관은 내년 1월 9일 이후 김천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충섭 시장은 “건강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고가의 예방접종비용이 부담스러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0604-증-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도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골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경주,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 ‘우수상’ 쾌거

지역특색 반영 시책·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애로사항 발굴·해소 부문에서도 고득점 획득

경주시가 경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는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체 지원시책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 △경북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기업 애로사항 발굴·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다.

경주시는 경제·산업·기업도시 전략 T/F 운영계획을 비롯한 기업지원 활성

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주기업 통합패키지 알리미 카카오톡 채널운영과 CEO포럼 등을 통한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경주 상생협력 기업지원'과 '경주 산업단지 대개조', '자동차산업 대전환 수퍼클러스터, 경북형 상생형 일자리', '경주 혁신원자력(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주 투자산업 선도지구 지정' 등 기업지원 시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화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과 '건천1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설

치' 및 '상수관로 정비' 등 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화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장' 사업은 "진입로가 협소한 탓에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주 기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경주시가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산단 진출입도로를 확장 사업이다.

'건천1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설치' 및 '상수관로 정비' 사업은 "산단 내 노후관로 누수로 인해 우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경주시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직소 및 현장 긴급 민원 원스톱 처리', '북북경주 SNS

소통채널 운영', '기업민원 현장 로드체킹' 등 민원 현장방문 처리와 소통창구 운영 등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강화 분야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경제활동진화성부문에서 개선도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는 기업지원 시책에 매진해 경북도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시책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뜻깊은 해"라고 말하며 "이를 발판 삼아 지역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우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당찬 포부의 뜻을 전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서면발전협의회 “몸도 마음도 튼튼하렴”

아화아동센터에 자전거 기증
체력 증진·즐길 거리 제공

서면발전협의회가 지역 어린이의 체력 증진을 위해 28일 자전거 5대를 아화아동소망센터에 기증했다.

기증된 자전거는 아화아동소망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체력 증진 및 스포츠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춘발 회장은 “아이들이 자전거로 인해 즐거워할 생각을 하니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영 센터장은 “이번에 기증받은 자전거를 통해 아이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즐거운 수업 분위기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종합자원봉사센터, 겨울외투 1700벌 외국인근로자에 선물

전년 기증 500벌 대비 3배 이상↑
외국인도움센터·YMCA에 전달

경주시민들이 기증한 겨울외투 1700벌이 추위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전달됐다.

경주시와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겨울외투 1700여벌을 지역내 외국인 지원기관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겨울외투가 전달된 곳은 경주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 경주YMCA, (사)외국인고 동행 등이다.

앞서 경주시와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외국인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겨울외투 나눔 운동'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한 달 간 진행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기증받은 겨울외투는 1700여벌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0여벌 대비 3배 넘게 모였다.

이에 '친절환경자씨(친절한 경주의 자원봉사자)' 회원 20여명은 지난 27일

과 28일 이틀에 걸쳐 종합자원봉사센터로 나와 분류와 포장작업을 하는 등 외투를 받게 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행사 분류·포장 작업에 참여한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민들의 따뜻한 마음

이 지난해보다 3배로 더해서 타지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이번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경주시민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KORAD, 노동이사 최초 선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초대 노동이사(비상임이사)에 이승재 기금관리센터 차장을 선임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 노동이사를 선임한 것은 공단이 처음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5월부터 노동이사제 도

입을 위한 노사협약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을 제·개정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승재 노동이사는 지난 28일 열린 제152차 이사회에 참석해 공단 임원으로 첫 공식 업무를 수행했다.

차성수 이사장은 “노동이사의 현장·실무 경험을 살려 노사가 상생·협력하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경주시와 (사)한국경제동경이보존협회는 28일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식'을 가졌다.

재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협회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경주개 동경이를 위탁관리한다.

주낙영 시장은 “보존협회가 이번 재협약을 통해 경주개 동경이 보존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기대한다”며 “동경이가 시민이 자

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가진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풍구 이사장은 “올해 진행된 경주개 동경이 마스터플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엔 더욱 경쟁력을 갖춘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에게 더 사랑 받을 수 있는 경주개 동경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김호진 부시장 이임... 경주 떠나 행안부로

2년간 굵직한 현안 사업 실현 박차
국비 확보·공모 선정 등 최다 기록

김호진(51) 경주부시장이 지난 2년간 몸을 담았던 경주시를 떠나 다음달 1일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2021년 1월 경주시에 부임한 김부시장은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조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재임 기간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아 경주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추진상황을 보고하며 국비 최다 확보, 공모사업 최다 선정, 기관수상 최다 기록을 거뒀다.



특히 경주비전 2040 미래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미래발전 7대 핵심정책 기획 및 추진, 10대 뉴브랜딩 개발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경주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1971년 경주시 현곡면에서 태어난 김부시장은 경주중·고를 졸업, 경북대 법학과 학사·석사를 거쳐 경북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행정 전문가다. 지난 1998년 지방행정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무총리실 전략기획 사무관,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 1등 서기관, 주번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를 역임했다.

이후 경북도로 자리를 옮겨 새경북 기획단 총괄기획 사무관을 시작으로 도정기획조정 사무관, 미래전략기획단장, 정책기획관 등 기획분야와 국제비즈니스과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등을 두루 거쳐 '전략기획통(通), 일자리·경제통(通)'으로 불렸다.

김호진 부시장은 “그간 시민들의 협조와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며 어느 곳에 있더라도 경주시를 잊지 않겠다”며 “몸은 떠나지만 태어나고 청소년기를 보낸 고향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 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생활 속의 인문학 경주박물관대학으로 오세요. 역사, 고고미술학, 문화재 공부, 그리고~ 즐거운 유적지 답사여행~

2023년도 경주박물관대학 기초반 48기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2022.12.1.-2023.2.10.(선착순 160명)

접수처 방문접수 및 온라인 접수
경주박물관대학 홈페이지(www.kjmms.or.kr)

문의전화 054)772-5173 / 773-5173
HP : 010-6363-3312

▶ 강사진 : 전국 유명 대학 교수 및 박물관장, 문화재관련 단체장
전문분야별 국내 최고 권위의 교수진으로 지방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수준 높은 강의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힐링이 되는 휴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경주박물관대학**에서 당신의 인문학 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사람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사람을 만듭니다.

국립경주박물관 내 (사)경주박물관회 사무실 경주박물관대학



1. 모집 대상 :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 등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2. 수강 기간 : 2023년 2월 25일 ~ 2023년 12월 16일 매주 토 오후 1시~3시(2시간)
 3. 수강 장소 : 국립경주박물관 강당
 4. 교육 구성 : · 교육분야 - 고고학, 고대사, 미술사 및 경주권 문화유적 분야
· 기초반(1년 과정)
강의 : 전국 유명 대학 교수 및 박물관장, 문화재관련 단체장(년간 38회)
현장학습 : 지도교수 인솔 경주권 문화유적 답사(년간 24회, 격주 일요일 중임)
· 연구반 : 2년 과정(기초반 수료한 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과정)
 5. 수강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2월 10일(160명 선착순 마감)
 6. 수강료(등록금) : 1년 분 40만원
· 입금계좌 농협 351-0224-8563-13(예금주: 경주박물관회)
※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개강 이후 환불 불가)
 7. 수강신청 : · 준비물 : 수강신청서(소정양식), 사진 2매(2×3cm)
· 수강신청(등록신청)은 경주박물관대학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사단법인 경주박물관회(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jmms.or.kr)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해 주세요.
- 문의처 : 국립경주박물관 내 (사)경주박물관회 사무실 경주박물관대학
전화 054-772-5173/010-6363-3312 FAX 054-772-5163
홈페이지 www.kjmms.or.kr 이메일 kjmms3312@gmail.com

市, 복지위기가구의 골든타임 사수 ‘속도전’

지역특화형 위기정보 입수체계 구축 통한 ‘위기가구 신속 발굴’
전국 최초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연계, 3050의심가구 발굴·조사

대구는 ‘위기가구 종합지원 대책’에 따라 지역내 일상생활 속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전기·가스·상수도 등 2개월 이상 연체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2가지 이상 연체된 가구에 대해 오는 2023년 1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9월에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10월에 한국전력 대구본부, 대성에너지㈜, 상수도사업본부와 지역내 추출할 수 있는

연체 정보 활용으로 신속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 빅데이터 공동 활용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올해 10월 말 기준 공공요금 2개월 이상 연체정보 6만3743건(전기 3만1932건, 가스 2만9180건, 수도 3181건)을 제공받아 빅데이터를 통해 위치와 건물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결합을 통해 2가지 이상 중복 연체된 복지위기 의심가구 3050가구를 발굴했다. 구별로는 달서구 781가구(25.6%),

남구 495가구(16.2%), 동구 437가구(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가지 모두 연체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구도 60가구에 이르러 신속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지역특화형 위기정보를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발굴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역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보다 최대 5개월은 더 빨리 연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생계 곤란으로 인한 단전·단수·단가스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초기 연체 단계에서 더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는 매월 전기, 가스, 수도 등

요금이 연체된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빅데이터를 통해 복지위기 신호를 신속히 발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속히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의관 복지국장은 “지역특화형 위기정보 입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위기 의심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리며 생계가 곤란한 시민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0번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3년 만에 대구시민 곁으로 ‘제야의 종’ 행사

31일 밤 10시 달구벌대중 앞 무대
안전 만전에 다양한 볼거리 가득

대구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타종행사를 오는 31일 오후 10시부터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중 앞 특설 무대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020년은 전면 취소, 2021년은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3년 만에 인원 제한이 없는 대면 행사로 진행한다.

올해 행사는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제도약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열림, 우리의 드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종식에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올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33인의 타종인사로 참여하고 타종 후 홍준표 시장의 신년사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구천가’ 합창 및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펼쳐진다. 특히 종각 전방에 좌우개방형 와이드 스크린(600인치)을

설치, 우리들병원 인근에는 이동식 리프트 스크린(300인치) 차량을 추가로 배치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어디서나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지역 예술단체들의 스트릿댄스, 퓨전국악 및 뮤지컬 공연, 대북 퍼포먼스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토끼머리띠와 핫팩을 배부, 포토존 운영과 함께 지역 자원봉사 단체에서 따뜻한 음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 등 5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DJ폴리스, 안전펜스 설치, 현장 구급반을 운영해 행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한편 행사장 인근을 통과하는 급행 5개 노선에 대해 막차가 오전 1시경에 시내를 통과하도록 하고 도시철도는 시내인근 역인 반월당역(1·2호선)과 명덕역(1·3호선)을 오전 1시 30분 전후로 통과하도록 연장 운행해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군정 역량의 우수성 입증” 달성, 기관수상 58건 ‘역대 최대’

달성군이 올해 58개 기관표창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개정 이래 역대 최다 수상실적을 기록했다.

중앙부처 평가에서 25건, 대구시 평가에서 13건,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20건을 수상했으며 행정서비스, 예산, 문화·관광, 안전, 보건·복지, 도시경관, 농업, 환경, 부동산 등 행정 전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 12월 문체부 공모 사업인 ‘제4차 법정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돼 대구에서는 최초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안부 주관 2022 지방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2022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우수, 2022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1위, 복지부 주관 2022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얻었다.

한편 군의 강점 분야인 관광에서의 성과 역시 눈부시다. 2022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문화관광도시 부문 대상, 제37회 서울국제관광전 최우수홍보상, 제23회 부산국제 관광전 최우수홍보상, 제7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최우수상, 2022 플레이 캠퍼스&트래블 페어 최우수 컨텐츠타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7건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단위 종합경쟁력 2위를 차지한데 이어 행정서비스, 보건·복지, 농업, 환경, 부동산 등 군정 전반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룩해 달성군정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박강석 기자parkzest@naver.com



동화건설, 이웃의 따뜻한 겨울 위한 마음 전해

대구시 집수리사업 1억 지정 기탁
꾸준한 기업의 사회 공헌 실현 ‘박수’

동화건설은 29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의 집수리사업’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열린 기탁금 전달식에는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정의원 동화건설 대표이사, 김누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성금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내년 대구지역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개선사업인 ‘사랑의 집수리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지난해 2000호 수리를 달성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들이 현금 후원, 직접 수리의 방법으로 적극 동참해 올해에도 취약계층 106세대에 따뜻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동화건설은 대구경북지역 국민주택 규모의 민영주택을 주력으로 보급해 지역시민의 주택공급, 주거안정에 기여한 기업으로 지난 1995년부터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보수사업에 적극 참여해 고령 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고 태풍, 코로나, 화재 등 지역사회에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재난 피

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현하고 있다.

정희원 동화건설 대표는 “소외된 이웃에게 기업이윤을 조금이나마 환원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구시민과 상생하는 지역사회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역 건설업체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실천해 지역발전에 기여해주신 동화건설 정희원 대표님께 대구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대구 교통 약자의 불편 해소에 최일선”

시설관리공단, 휠체어 이용고객 장기대기자 전담반 시범 운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휠체어 이용고객의 장기대기를 해소하기 위한 ‘휠체어 이용고객 장기대기자 전담반’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공단 나드리콜(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은 현재 휠체어 이용고객 대상 우선 배차를 실시하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 고객의 경우 특별차량만 탑승할 수 있어 타 고객 대비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이에 공단 나드리콜은 추운 겨울 휠체어 고객의 대기시간 감축 및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오는 1월 2일부터 특장차 10대를 배치해 ‘휠체어 이용고객 장기대기자 전담반’을 시범 운영한다.

‘휠체어 이용고객 장기대기자 전

담반’은 전담 상담원이 관제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배차시도 30분 이상 장기대기자 중 휠체어 이용고객을 우선으로 지정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요가 많은 월요일~금요일 사이 이용가능하다.

휠체어 이용고객 장기 대기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규 서비스를 준비한 나드리콜은 전담반 운영체제를 점검하고 직원 친절교육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기봉 공단 이사장은 “시범운영 후 대기시간 분석을 토대로 서비스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다”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의성군, 양질의 노인 복지 서비스 위한 ‘맞손’

영양군, 道 민원행정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노인복지기관과 위·수탁 체결
경로당도우미·은빛청춘대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속 제공
노후생활 활력·여가문화 향상

의성군은 지난 26일 오는 2023년 경로당 행복도우미, 은빛청춘대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성군은 향후 1년간 각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마을의 사랑방으로 이용되는 경로당에 행복도



우미 및 전문강사를 배치해 실버체조, 공예,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사전조사에 따른 현장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경로당 미이용 어르신 가정방문해 말벗이 돼 주고 운영비 관리, 위생 상태 등 경로당 전반을 관리·지도한다. 은빛청춘대학 사업은 지역내 65

세 이상 노인 대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지역 노인들에게 건강유지, 자기개발의 기회 제공 등 건전한 여가문화를 향상시킴으로써 노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비용 돌봄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의성군은 133명의 생활지원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돌보며 △방문·전화 안부 확인 △취미수업·체험활동 △윤동·영양 보건교육 △혹서기·혹한기 일일모니터링 및 계절성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주수 군수는 “내년도에 시작하는 노인복지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지역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업무 협약을 통해 의성군과 수행기관이 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협력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특히 영양군은 전국 최초로 ‘24시 AI(인공지능) 통화비서 서비스’ 운영, 국민 신문고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온도탑 설치’ 등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타 시군과 차별되는 특수시책 추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도창 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참신한 민원시책 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더불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77@nate.com

안동시 “마이스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

IAEC세계총회·LHC회의 관련
평가 보고회서 향후 개선안 제시

안동시는 29일 시장을 비롯해 국제회의추진단 주관부서장 등 20여명이 모여 ‘제16회 안동국제교육도시연합(IAEC)세계총회’와 ‘제18회 세계역사도시(LHC)회의’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제16회 안동국제교육도시연합(IAEC)세계총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22개국 130개 도시에서 1000여명이 참가했으며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는 21개국 48개 도시에서 840여명이 참가해 두 국제회의의 모두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평가보고회는 주관부서인 행정지원실과 평생교육과에서 국제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사 전반에 대한 보고와 국제회의추진단 주관부서장의 보고 등 개최 성과 및 문제점과 향후 국제행사 개최 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행사장, 교통, 숙박, 식사 등 회의 참가자 편의에 대한 평가항목과 학술행사, 부대행사, 체험 및 홍보 부스, 관광 등 회의 전반에 관한 항목 등을 설문해 참가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향후 국제행사 개최 시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행사 매뉴얼을 제작해 부서간 공유할 예정이며 나아가 안동이 ‘마이스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국제회의의 성공 개최로 안동의 세계적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수한 교육·문화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평가보고회를 통해 공유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안동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 수준 높고 차별화된 안동형 국제회의의 개최를 위한 토대를 만들 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수 기자oms7277@nate.com

봉화, 청소년센터 생리대 무료 지급기 설치

봉화군청소년센터에 여성 생리대 무료 지급기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봉화군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생리권 보장을 위해 28일부터 봉화군청 청소년센터(3층 여자화장실)에 여성 생리대 무료 지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생리대 무료 지급기는 생리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고충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불편함 해소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으며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박현국 군수는 “생리대 무료지급기를 통해 여성청소년이 비상시 편리하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만 9세~24세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새로운 2023년, 청송군민이 하나로 화합하는 해가 되기를”

새해 군민화합 해맞이 행사
소원소지 올리기·떡국 나눔

청송군은 오는 2023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청송양수발전소 상부담에서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기원하는 ‘2023 새해 군민화합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파천농수산악회가 주관하는 해맞이 행사는 새해 소망 성취를 기원하는 소원소지 작성 및 소원소지 올리기, 세시 음식(떡국) 나누기, 초청가수 및 대북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오전 7시 37분경 일출 후 행사장 특설 제단에서는 청송군 산악인과

군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시산제도 이어질 예정이다.

3년 만에 열리는 해맞이 행사인 만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행사 당일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 안전관리요원과 교통·주차 통제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차, 구급차,

산불진화차량을 행사장에 상시 대기시켜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3년 만에 군민들과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누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계묘년 새해 군민 모두에게 풍요로운 한해 보내시길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문경시, 이언주 전 국회의원 초청 ‘전환시대의 새로운 질서’ 특강 개최

공직자 소양 함양 위해 자리 마련
의정활동 때 경험 공유·질의응답

문경시는 28일 오전 10시 문화아트홀에서 이언주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공

직자 소양 함양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이언주 전 의원은 ‘전환시대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특강이 끝난 후 의정활동을 하며 배우고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 주요쟁점에 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현국 시장은 “오늘 특강을 위해 귀

중한 시간을 내주신 이언주 전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언주 전 의원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이 문경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상주시농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부

친환경농업 중심도시 상주에서 생산된 청정농특산물은 다릅니다.

상주한우

상주포도

상주복숭아

상주배

상주사과

상주벌꿀

상주오미자

상주시



메타시티 구미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개소

총사업비 200억 투입 구축·운영
메타버스 산업단지 실증사업과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탄력’

구미시가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를 개소하고 메타시티 구미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8일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과 메타버스 활용·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 메타버스 기업 통합지원 거점인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개소

식을 가졌다. 김창호 시장을 비롯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박호상 금오공대 총장, 우병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및 메타버스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북도, 강원도, 구미시, 강릉시, 대구시가 지원하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주관한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60억원, 지방비 140억원,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

입된다.
구미시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5G망 기반 실증 지원,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운영 및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구축, 지역내 메타버스 인재양성 등을 수행하는 지역 메타버스의 중심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5G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실증 사업,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사업, 메타버스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사업 등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북·강원·대구의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특화사업 발굴 지원에 전문성을 더한다.
김창호 시장은 “XR 디바이스 개발센터, 5G 테스트 베드 등 구미 금오테크노벨리에 기구축된 메타버스 관련 인프라에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가 추가되면서 메타버스 사업의 집적 거점화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선점하고 우수 인력이 몰려드는 메타버스 대표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칠곡군민이 뽑은 2022 올해의 뉴스 ‘TOP 10’

1위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무료 개방’, 2위 ‘왜관 시가지 지중화 사업’

칠곡군은 군민, 네티즌 등 2000여명의 투표로 선정된 “2022 칠곡군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한해 주요 정책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군민이 기대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제가 됐던 20개 뉴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무료 개방(9.4%)’이 1위로 선정됐다.
2위는 ‘왜관 시가지, 지중화 사업’으로 꼽혔다. 단장(8.5%), 3위에는 ‘낙동강 대축전 ‘왜관 1번 도로’ 개최’, ‘원도심 축제 새로운 지평 ‘활짝’(8.1%)’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군부대 유치 희망 서명

운동, 3일 만에 2만여명 동참! △칠곡군 시그니처 포스트 ‘럭키 칠곡’ 화제 △법정문화도시 지정 △스티브 잡스처럼 군정 방향 PT, 색다른 취임식 열어 △한티가는 길,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전국 입소문 △문화체험관광 ‘공예 테마공원’ 개관 △칠곡군립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재개관, 북함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등이 선정됐다.
김재욱 군수는 “10대 뉴스를 통해 확인된 군민들의 행정 수요를 반영해 오는 2023년에는 군민들과 소통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상주,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우수’

지방규제혁신TF 등 좋은 평가
전국 중소도시 중 1위 성적 기록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규제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성과급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반 운영 실적, 중앙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개선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광역시, 시, 군, 자치구를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시 단위는 재정규모별

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나눠 평가했다.
상주시는 전국 중소도시 중 1위의 성적으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상주시는 부시장 주재의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해 3회에 걸쳐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했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영석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중흥하는 미래상주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확보된 특별교부세 3억원은 전액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고령1일반산업단지, 교육발전기금·사랑의 성금 ‘1억’ 쾌척

군청 방문, 각각 5000만원씩 전달
다산주철·대경캐스팅 등서 기탁

고령1일반산업단지(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 27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교육발전기금 5000만원과 사랑의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고령1일반산업단지(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에서 교육발전기금 및 사랑의 성금을 기탁한 업체는 ㈜다산주철 1000만원, 대경캐스팅㈜ 500만원, ㈜영진주물·영진금속 1000만원, 세화금속공업㈜ 500만원, ㈜우리케스트 500만원, ㈜가온케스텍 300만원, ㈜미래금속 300만원, ㈜보영금속 300만원, 동성캐스팅㈜ 200만원, ㈜동희 200만원, 삼보주공㈜ 200만원, ㈜내일금속 100만원, ㈜대룡금속 100만원, ㈜대창금속열처리 100만원, ㈜도원 100만



원, ㈜동양패시마에이치티 100만원, 동일캐스팅㈜ 100만원, 보국주물공업㈜ 100만원, 산도테크㈜ 100만원, 해원산업㈜ 100만원, ㈜다와이메탈 50만원, 계백자동차㈜ 30만원, 신한주철공업㈜ 500만원, ㈜우전 500만원, 태영금속㈜ 500만원, 해원에프엠㈜ 400만원, ㈜신우금속 300만원, ㈜케이원메탈1공장 300만원, 효성금속㈜ 300만원, 서경금속㈜ 200만원, ㈜용진 200만원, 태백주철㈜ 200만원, 삼우금속㈜ 100만원, 신영산업㈜ 100만원, 재진금속 100만

원, ㈜중앙금속 100만원, ㈜태흥주재 100만원, 케이엠텍㈜ 50만원, 세창주철공업㈜ 30만원이다.
고령1일반산업단지(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에서는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 그리고 추운 날씨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소중히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했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철 군수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발전기금과 사랑의 성금으로 큰 금액을 기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령군 교육발전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힘든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일호기자hoyai515@daum.net

성주군, 인구정책 우수시군 평가 우수기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
지역 특색 살린 정책 등 ‘성과’

성주군은 “2022년 경북도 인구정책 우수시군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성주군은 1박 2일 가족 참여 프로그램인 ‘성주 올라이트 생명학교’와 관내 특색있는 장소에서 결혼식 진행을 지원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등으로 성주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인구정책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정책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급 방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긍정적인 평

가를 얻어냈다.
이병환 군수는 “올해를 인구정책 우수시군 평가 우수라는 뜻깊은 평가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반응해 군민이 중심인 성주에서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좋은 인구정책들로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에서는 전입자를 위한 정착지원금, 성주군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 예비 부부를 위한 작은 결혼식과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올라이트 생명학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주군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일호기자hoyai515@daum.net

<div>아리따움 경주점 대표 박 선 이</div> <div>경주시 계림로 102 ☎ 054-749-7979</div>	<div>대구경북 교육신문 대표 백 재 욱</div> <div>경주시 초당길 5번길 3 (동천동, 2층) ☎ 054-745-7277</div>	<div>스멜스라이크브레드 대표 황 숙 향</div> <div>경주시 광증길 24 127호 ☎ 010-3523-1308</div>	<div>아이비투어 대표 김 재 욱</div> <div>경주시 용강동 1533 에이치타워 204호 ☎ 0507-1374-7755</div>	<div>경주평양냉면 대표 윤 영 선</div> <div>경주시 원효로 109-2 ☎ 054-772-2448</div>
<div>영신정공 본부장 김 영 삼</div> <div>경주시 천북면 오아리 394 ☎ 054-745-4491</div>	<div>경주시수협 지점장 김 윤 정</div> <div>경주시 광증길 24 ☎ 054-705-1020</div>	<div>세한금속 대표 김 효 철</div> <div>경주시 유림로 5번길 133 ☎ 054-773-0221</div>	<div>돈덩어리 대표 우 성 만</div> <div>경주시 백률로 42 ☎ 054-773-5025</div>	<div>㈜세영클린텍 대표 양 창 권</div> <div>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90 ☎ 010-3539-9395</div>
<div>마호기획광고 대표 이 재 희</div> <div>☎ 010-3857-1111</div>	<div>김경희난타연구소 대표 김 경 희</div> <div>☎ 010-3953-7576</div>	<div>KB손해보험 경주지점 조봉래</div> <div>경주시 화랑로 125 5층 ☎ 010-3506-2781</div>	<div>두천개발(부동산) 대표 최 석 환</div> <div>경주시 백률로 42 ☎ 010-3521-1004</div>	<div>경북종합폐차장 이사 정 관 호</div> <div>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7 ☎ 010-7755-2933</div>



청년맞춤 프로그램, 영천의 힘으로 ‘쑥쑥’

영천청년센터 성과공유회 개최

영천청년센터는 28일 프로그램별 참여 활동 성과 공유 및 청년 참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영천청년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영천청년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지역 청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 2022년도 프로그램 성과 발표, 청년 소통 교류회, 2023년 프로그램 및 청년정책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별별스쿨(청년강사, 대화모임,

청년 실험실), 소셜라이징(청년창업가 제품 나눔 봉사), 듀얼라이프(영천 체험해 보기) 등의 청년이 중심이 돼 2022년 진행했던 프로그램 성과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도 지역 청년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강구민 센터장은 “내년에는 지역과 상생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네트워킹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석열 기자jsy82920@hanmail.net

공업도시 포항, 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

시 역점사업 ‘그린웨이 프로젝트’ 7년차… 성공적 성과에 ‘해외 눈길’

포항시는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7년차를 맞아 본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시민(사람)’을 중심 가치로 두고 산업도시로 알려진 지금까지 포항의 도시 이미지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녹색생태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이다. 특히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포항철길숲은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이 이용하며 도심 내 녹색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하며 도시 이미지 개선, 걷는 문화 확산, 시민건강 증진 등 다양한 무형적 가치 창출을 통해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어 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영국 정부 산하 환경단체인 Keep Britain Tidy(KBT)로부터 수준 높은 공원녹지에 부여하는 ‘녹색빛발상’에 아시아 최초로 인증됐으며 UN 해비타드 주관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산림청 주관 대한민국 대표 모범도시숲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그린웨이 프로젝트 이후 7년간 49만여㎡의 대규모 도시숲과 녹지를 확충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했으며 해도도

시숲과 포항철길숲 2곳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에 등록함으로써 향후 30년간 약 2000여t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통행량이 많은 시청 앞과 영일대해수욕장을 비롯해 주요 교통선에 상설정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청량감을 선사하고 시민장원사 교육, 장미아카데미 등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과 함께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등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활성화했다. 포항시는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녹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이 제안한 안전한 철길숲 조성 방안과 다양한 콘텐츠 도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내년도 일부 예산을 반영해 필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포항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단순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녹색도시로 변모하는데 성공했으며 향후 신산업 유치와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주환경으로 포항시가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 포항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포항의 숙원 항사댐, 시민 안전 위한 ‘첫삽’

포항시, 국비 19억8천만원 확보
2023년 계획 수립, 2025년 착공
필수 치수대책 방안 마련 ‘집중’

포항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와 자연 재해를 예방해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숙원사업인 항사댐 건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항사댐 건설은 최근 기획재정부 2022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 적정성 검토 면제를 받은 것과 함께 오는 2023년도 국비를 국회 증액으로 19억8000만원(타당성조사비)을 확보하게 돼 탄력을 받는다. 항사댐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대골)에 높이 50m, 길이 140m, 저수용량 476만t 소규모 댐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고시 등 행정절차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완료할 계획이다. 지리적으로 여름철 호우가 집중되는 포항은 특히 오천읍 신광천과 냉천이 홍수에 취약하다. 길이 약 19km인 냉천은 대규모 시가지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으로 하류에 철강산단 및 주거 밀집 지역이 위치하며 동해로 직접 흘러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시 광범위한 범람 피해에 취약한 지형이다. 신광천 역시 길이가 짧고 상류 경사가 급해 단시간 내 많은 유량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냉천 상류에 농업용 저수지인 ‘오어지’가 있지만 수위조절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집중호우에는 대비할 수 없고 냉천 주변은 도로, 주택 등 제약으로 제방 폭이나 높이를 넓히는 방법으로는 홍수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오천읍 일대(냉천, 신광천 유역)의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고 홍수방

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항사댐 건설 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댐희망지 신청제’의 일환으로 항사댐 건설을 신청해 국토부에서 추진해 오던 중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촉발지진 발생 및 2018년 국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소규모 댐건설 추진 업무가 지연됐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환경부장관·기재부장관 등 현장 방문 시 사업촉구를 건의했으며 10월에 당초 이·치수 목적에서 치수(홍수조절)단일 목적으로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당초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항사댐 건설 국비 19억8000만원(타당성조사비)을 추가 확보하면서 항사댐

건설 본격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편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오천읍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101mm의 폭우가 쏟아져 509.5mm의 누적 강수량으로 인해 냉천이 범람하면서 오천읍 일대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은 더욱 심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게릴라성 호우와 점점 강력해지는 태풍 영향으로 유실되는 수자원 및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적·사회적 지리를 고려한 맞춤형 치수 대책 및 저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이강덕 시장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만으로는 부족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댐건설을 통한 치수대책이 필수적”이라며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안전1번지 청도군, 사고 예방의 선제적 대응 성과 ‘박수’

안전대전환 점검 평가 ‘장려상’
주민신청제 적극 운영에 ‘호평’

청도군은 지난 22일 경북도 주관 ‘2022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59일)까지 청도군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인 시장, 요양병원, 상하수도 시설 등 93개소를 민관합동으로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자율점검 등 집중안전점검의 중요성 홍보 및 취약시설에 대한 주민신청제를 적극 운영해 지역의 노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



심과 신청으로 수상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하수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노후·위험 시설물의 점검 후 예산 확보를 통한 개·보수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종길 기자jik2929@naver.com

영천시, 지역사랑상품권·카드 연중 10% 특별 할인 판매… ‘경제 살리기 노력’

1인당 구매한도 100만원 조정
지류 30만원, 카드 70만원 가능

영천시는 고물가 상황 속 지역 경제 회복 기원의 일환으로 오는 2023년에도 영천사랑상품권·영천사랑카드를 연중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총 900억에 대해 특별 할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 종료된다. 단 지류 상품권의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와 카드 간 구매한도를 조정해 1인당 월 지류형 30만원, 카드형 70만원으로 총 100만원 한도(기존 월 지류 50만원, 카드 50만원)로 판매한다.

지류형 상품권인 영천사랑상품권은 지역내 농협, 지역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을 비롯한 42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카드형 상품권인 영천사랑카드는 지역내 농협,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한국조폐공사 앱(지역상품권 Chak)에서 발급해 충전할 수 있어 발

행 후 매년 사용금액이 늘고 있다. 영천사랑상품권 가맹점·영천사랑카드 가맹점(약 3436여개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지역 경제·영천사랑상품권·영천사랑카드 가맹점) 또는 ‘Chak’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석열 기자jsy82920@hanmail.net

<div>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정 동 식</div> <div>경주시 원화로 285 3층 ☎ 054-771-3344</div>	<div>공간종합주방 대표 양 주 석</div> <div>경주시 알천남로 128 ☎ 054-774-1444</div>	<div>(주)강산투어 대표 최 병 오</div> <div>경주시 원화로 372 ☎ 054-753-7777</div>	<div>가인전력에너지 대표 김 영 철</div> <div>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37 ☎ 054-762-2007</div>	<div>영양숯불갈비 대표 황 태 욱</div> <div>경주시 봉황로 79 ☎ 054-771-2627</div>
<div>아시안스포츠 대표 최 병 진</div> <div>경주시 화랑로47번길 3 ☎010-5588-9999</div>	<div>중앙마트 대표 최 병 오</div> <div>경주시 화랑로 42 ☎ 054-775-3241</div>	<div>한국대중음악박물관 부관장 도 인 속</div> <div>경주시 엑스포로 9 ☎ 054-776-5502</div>	<div>세무법인텍스코리아 대표 김 창 호</div> <div>경주시 원화로 306 (성동동, 5층) ☎ 054-777-2666</div>	<div>조방박지 대표 손 일 희</div> <div>경주시 중앙로29번길 13 ☎ 054-775-3002</div>

영주시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UP”

道 中企 육성정책 평가 ‘우수’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등 추진
운전자금 이차보전 12억 지원

영주시가 ‘2022년 경북도 중소기업 육성정책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의 기업 지원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지

원부서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계획 △자금지원 △에로해소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시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 △농공단지 특화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농공·산업단지 입

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원자재 가격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22년 융자추천 한도를 계획보다 145억원 추가 증액해 190개 업체에 500억원을 융자추천하고 이차보전금 12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기업지원 알리미’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분산된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홍보물과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및 지역내 생산제품을 알리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박남서 시장은 “시의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실적에 대해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대구 서구청, 기록물관리 운영실태 ‘최우수’

해당 평가서 3년 연속 선정 쾌거
타 기관 대비 관리 업무에 ‘최선’

대구 서구는 대구시가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기록물관리 운영실태 평가’에서 지난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지원의 적극성 △기록관리 업무수행 충실성 △기록관리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지원 등의 3개 분야,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 서구는 전반적으로 기록물관리 업무추진 실적과 업무 완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타 기관 대비 높으며 처리과 지도점검, 전자 및 비전자 기록물 인수 등 기록물관리 업무에 충실히 수행했기에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류한국 청장은 “기관의 적극적인 기록물관리 업무 지원과 충실한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으로 또 한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안동문화관광단지의 대변신, 관광객이 끌리는 명소로

시, 단지내 전판대·유교랜드 등
다채로운 볼거리 확충 ‘재정비’

안동시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주요 집객시설인 △전판대 △유교랜드 △주토피움을 정비하고 다채로운 콘텐츠와 볼거리를 확충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지역민이 머물고 관광객이 찾는 지역 핵심 관광지로의 도약 준비를 마쳤다.

안동문화관광단지는 안동의 핵심관광지인 월영고, 낙강물길공원, 안동댐과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카페, 가족형 체험시설을完비한 곳으로 본 사업들로 시너

지를 내며 관광명소로서 새로운 부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최근 몇년간 미운영됐던 전판대를 전면 리모델링 추진하고 특히 외부 경관조명에 형형색색의 빛을 더해 야간 볼거리와 생동감있는 분위기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지상 3층은 내부 리모델링을 완료해 카페로 임대해 내년 초부터 다시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지상 1층 야외 목재데크도 새롭게 정비해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콘텐츠 노후화로 리뉴얼이 시급했던 유교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공모 선정으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첨단기술 기반의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 메타버스유교박물관으로 변신을 도모해 메타버스 연동의 실감 콘텐츠로 리뉴얼이 추진된다.

올해 연구개발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새로운 콘텐츠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재개장할 예정으로 안동문화관광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식물원에서 가족친화체험형 동·식물원으로 새롭게 단장해 운영 중인 주토피움은 개장 후 1년간 방문객이 과거 온트레피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지역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찾는 안동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내 유희부지를 활용한 초화류 군락지 조성, 안동호반달빛야행,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과 같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이처럼 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해 힐링·체험을 겸비해 머물고픈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KORAD, 중소 협력사에
ESG 성장 동력 확보 ‘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29일 ESG 경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도기술, 케이엔정보기술 등 방폐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중소 협력사를 선정해 ESG 분야별 현황 파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ESG 컨설팅을 지원했다.

케이엔정보기술에는 고객요구 대응력 강화, 아이로그에는 창입자 비전을 ESG 경영 전반에 반영한 목표 제시, 소암컨설팅트에는 ESG 대응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주문했다.

차성수 이사장은 “ESG 경영 트렌드 확산에 따라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방폐물사업에도 ESG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f12@daum.net



진보, 청소년의 학업 정진 위한 ‘따뜻한 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구시사회복지관협회와 28일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 지원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

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회 소속 복지관들의 추천을 받아 조순·장예인·한부모 가정 초·중·고등학생 20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박선영 본부장 직무대행은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뜻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영양군, 아름다운 사계 자작나무를 만나다

영양군은 지난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10일간 영양문화원 전시실에서 손경수 화백 기획초대전 ‘영양의 사계 자작나무를 만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 ‘영양의 사계 자작나무를 만나다’는 영양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영양자작나무를 화폭에 담아낸 다양한 수채화 등 40여점이 전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관람으로 진행된다.

영양군 출생의 손경수 화백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및 전국 공모전 30회 입상에 빛나는 이력을 자랑한다.

또한 다수의 개인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으며 현

재 영양미술인협회 회장으로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손경수 화백은 “영양의 아름다운 사계를 그린 그림과 자작나무 그림을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반갑고 영양의 아름다움과 수려한 자연을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의 미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손경수 화백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돼 기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즈음에 군민들에게 양질의 예술작품을 향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또다시 불거진 ‘소상공인단체 대표성 논란’ 에… 현장서 ‘불만 폭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앞두고 소상공인 단체들 ‘찬반’
이해관계 갈리며 불협화음… 현안 앞 목소리 모으기 집중 지적도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앞두고 소상공인 단체 간 대표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소상공인 법정단체 설립 때부터 이어진 논쟁이지만 복합경제위기가 전망되는 만큼 지금은 현안에 집중해 다양한 의견 조율에 힘써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 참여 단체들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구시청 별관 앞에서 전국 17개 지회장과 대형마트 평일 휴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대구시는 빠르면 내년 초 대형

마트 평일 휴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협약식엔 전통시장 상인을 대변하는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와 대구 동부 및 중서부 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의 중소 소상공인 및 유통업체가 참여했다. 소상공인 법정 경제단체인 소공연과 대구마트 유통협동조합, 서문시장상가연합회는 이번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공연 관계자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명확히 반대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주최측이 (소공연 측에) 별도 연락 없이 협약식을 진행한 것 같다”며 “의무휴업일 전환 및 폐지는 전통시장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라 더욱 다

양한 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마트 유통협동조합 관계자도 “의무휴업일이 있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총매출액을 비교하면 3% 가량 차이가 난다”며 “이번 협의체엔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논의가 흘러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상인연합회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건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직접적 이해당사자”라며 “소상공인엔 이발소, 목욕탕 등 여러 업종이 포함된다. 이들이 협의 대상자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지난 8월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검토와 관련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소공연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유지하고 온라인 배송 규제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이 체결된 후 소상공인 단체 간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불협화음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전날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제인스토어협회는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가받는 대신 중소유통의 판로확대 및 시설장비 개선 등 디지털화 작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면 대구처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입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소상공인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이 갈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소상공인 법정 단체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소공연 참여 단체 선정 과정에서 대표성 문제를 두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엔 생활방역위원회 소상공인 대표 자리를 사이에 두고 소상공인 단체 중 누가 적합자인지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소공연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해 소상공인 유일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의 방역외 참여를 호소했지만 당시 대표 자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중소상인자영

업자총연합회에 돌아갔다. 대표성 쟁거투기와 관련해 현장에선 불만이 쌓이고 있다. 한 소상공인업체 관계자는 “서로가 진짜라고 다투니 여러 단체가 난립하고 상호 결속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누가 대표하든 우리 입장에서 현장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주면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공연이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소상공인업체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이 다양한 만큼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소공연은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정경제단체이기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칠곡군, 투자유치대상 ‘장려상’
900억원 이상 투자협약 성 과

칠곡군은 지난 28일 도청에서 열린 2022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북도 투자유치대상’은 지난 1년간 M O U 체결 및 투자유치실적,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칠곡군은 900억원 이상의 투자협약과 700억원 이상의 실투자 성과는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 고충 해결과 산단 입주기업 투자 독려 및 스타기업 선발 등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송홍달 기자song081700@naver.com



포항시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국비예산 사업비 100억 확보
내년 설계 진행, 2025년 준공

포항시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우량목재와 산불피해목 등 가치 있는 폐목활용을 위한 ‘경상권 목재자원화 센터 건립’에 국비예산 총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포항시는 이번 예산확보를 위해 타당성 검토 구상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전국 최초 경상권 목재자원화 신규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3년부터 5억원을 반영해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에는 원목의 자원화를 위한 건조장, 고품질 원목 목조건축 자재 자원화장, 가공기, 성형기 등 목재자원화용 인프라 시설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목재자원의 고부가 가치화 및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전국 산림면적의 21.5%, 국보급 목재문화재의 34%가 집중된 목재산업 선도도시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목재산업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올해 3월 울진군 산불로 208만㎡의 피해목이 발생하고 유류 목재자원이 늘어 사업의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목재자원화 센터가 준공이 되면 목조건축물 확대, 국산목재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 지역고용창출효과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탄소저감 효과가 적은 노령목 등을 위주로 별채해 목재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본 사업은 경상권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목재펠릿 지원 등 에너지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자원화 공급확대를 통해 자연자원순환, 탄소흡수원 촉진 녹색건축보급 측면에서 장기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국산목재의 이용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이다. 목재는 철근, 콘크리트 등 타 재료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과 배출되는 탄소량이 적은 소재이다. 목재를 생산하는데 비해 동일 부피의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79배, 철강은 26배다, 콘크리트는 6.6배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와함께 목재 이용은 ‘조림-숲가꾸기-목재수확-목재이용’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목재를 수확해 이용하는 것은 산림이 흡수한 탄소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강덕 시장은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연열 기자cyt4568@naver.com

“내년엔 더 어렵다”…구미산단 기업체감경기 ‘뽕뽕’

기업 실적·경영환경 영향 요인
원자재 가격이 31.7% 가장 많아
2023년 1분기 BSI 경기전망 ‘81’
구미산단 제조업체 경기가 내년 1분기에는 더욱 악화 될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지역내 10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결과 BSI 전망치는 81로 나타났다. 1분기(100) 이후 3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다 4분기 대비 3포인트 소폭 증가했으나 기준치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자동차부품 95, 전기·전자 76, 섬유·화학 54, 기타 94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섬유·화학 업종에서 원·부자재가 상승 외에도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0, 중소기업이 79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역시 매출액 88, 영업이익 77, 설비투자 88, 공급망 안정성 84, 사업장, 공장 가동 89로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 원·부자재가 상승 및 급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비용상승 등

으로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연초 목표치 달성 여부를 집의한 결과 매출액의 경우 소폭 미달 42.6%, 크게 미달 20.4%로 63.0%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나머지 37.0%는 목표치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의 역시 소폭 미달 45.4%, 크게 미달 24.1%로 응답업체의 69.5%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 나머지 30.5%는 목표치 달성 또는 초과 달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22년 기업들의 실적 및 경

영환경에 영향을 끼친 국내외 요인로는 원자재 가격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내수시장 경기 30.8%, 수출시장 경기 17.5%, 고금리 상황 10.8%, 교환율 상황 9.2% 등으로 응답했다. 심규정 구미상공회의소 기업유치팀장은 “올해 구미산단 수출 실적이 8년 만에 3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비나 수출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Happy together 김천

김천호두

1위 전국생산량

맛과 영양이 풍부한 김천 명품 호두

김천시

청송 거림회, 7년째 공헌활동 '귀감'



청송군 거림회가 28일 (제)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거림회는 큰 숲을 만들자는 의미로 결성된 청송군 자생단체로 지난 2016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7년째 끊임없이 지역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용욱 회장은 "40여명 회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지역의 인재육성사업에 동참해 기쁘다"며 "청송의 미래인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경희 이사장은 "청송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거림회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봉화로타리, 이웃사랑 실천 '앞장'



봉화로타리클럽 회원 일동은 28일 봉화군청을 방문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화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뜻을 모아 준비했다.

안중기 회장은 "봉화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현국 군수는 "연말에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봉화로타리클럽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경주알영로타리 전·현직 회장 '봉사로 함께한 20년'

손일희·박현순·김현숙·이명숙
개인 사비 보태 이웃 사랑 펼쳐

국제로타리3630지구 경주알영로타리클럽 전·현직 회장들이 봉사를 행복의 일순위로 여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20여년간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경주 알영로타리클럽 손일희·박현순·김현숙·이명숙 회장 4인이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로타리안으로 만나는 기쁨을 함께하며 지금까지 클럽차원의 봉사뿐만 아니라 사비를 보태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해왔다.

PC가 없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PC 지원, 온정마을에 봉사 중 재봉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며칠 뒤 재봉틀을 구매해



전달하는가 하면 백혈병 환우의 소식을 듣고는 매달 10만원씩 일년간 꾸준히 병원비를 지원하는 등 수혜자

맞춤 봉사를 펼치며 감동을 전했다. 그렇게 한마음 한몸이 돼서 함께 봉사현장을 누비며 20여년간 우정을

다져온 이들은 올해도 연말을 맞아 의기투합해 산내면 대현리에 위치한 어르신 종합 복지센터 사랑의보급자리를 찾아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사랑의보급자리를 찾은 전·현직 회장단은 "어르신들이 올해 남은 날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오는 2023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며 정성껏 준비한 고품격, 낙지볶음, 전병, 대추차, 바나나, 꿀 등 70인분의 별식과 간식을 후원했다.

경주알영로타리클럽의 초대회장인 손일희 회장은 "봉사는 기쁨을 나누며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동료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마음을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우리 이웃들이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황은솔 기자unsol1986@naver.com

한수원 월성본부, 마음 담아 '초록 새싹 응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28일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1800만원을 전달했다.

경주시 지역아동센터는 총 28개 840명의 아동이 현재 등록돼 있으며 이번 기탁된 후원금은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선물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김한성 본부장 및 문희

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장이 참석했으며 후원금 전달 후 지역 아동 대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한성 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아이들에게 작은 행복과 기쁨이 되길 바란다"면서 "월성본부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태권도협, 나라시와 자매결연 맺어 교류



경주시태권도협회가 나라시태권도협회와 29일 자매결연을 맺고 태권도 교류에 대해 상호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을 서로 약속했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은 "두 협회의 자매결연이 양국 간 태권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락 경주시태권도협회장은 "사카구찌 아키라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방문을 뜨겁게 환영한다"라면서 "이번 자매결연으로 지도자 교육, 대회를 비롯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문경 나눔캠페인, 넘치는 사랑 속 희망 '활짝'



문경시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수이앤씨 200만원, 소나무건축 200만원·이불 30채(300만원 상당), 문경시니어클럽 100만원, (사)수와진의 사랑더하기 생활용품 100세트(200만원 상당), 시사회복지사회 100만원, 시공무원노동조합 300만원, 시제활용

협회 200만원, 문경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200만원, 문경지역자활센터 100만원, 점촌3동체육회 200만원, 점촌1동주민자치위원회 100만원, 점촌1동체육회 100만원, 가은읍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 100만원, 임정희(문경시 가은읍)씨가 400만원을 기부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동 정

2022년도 종무식 참석



이강덕 포항시장은 30일 포항시청 대강홀에서 열리는 2022년도 종무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농어업회의소 성과보고·사업설명회



주낙영 경주시장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코도호텔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농어업회의소 성과보고 및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다.

2022년도 종무식 참석



권기창 안동시장은 30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낙동홀에서 열리는 안동시 2022년도 종무식에 참석한다.

2022년도 연말시상식 참석



박남서 영주시장은 30일 오전 10시 시청강당에서 열리는 2022년도 연말시상식에 참석한다.

비살은 영천협 2022년 실천대회



최기문 영천시장은 30일 오후 1시 30분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 2022년 실천대회에 참석한다.

2022년 연말 공무원 표창 수여식



최재훈 달성군수는 30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2022년 연말 공무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공직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2022년도 종무식 참석



윤경희 청송군수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2년도 종무식에 참석한다.

2022년도 종무식 참석



오도창 영양군수는 30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년도 종무식에 참석한다.

2022년도 종무식 참석



박현국 봉화군수는 30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년도 종무식에 참석한다.

중년의 개구쟁이 다 모여라~ 내 나이가 어때서~ ♪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

경주는 졸업한지 30~40여 년 이상 된 중, 장년층에게 아름다운 학창시절의 추억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옛 교복을 입고 친구들이 다시 모여 '추억의 경주 앵콜 수학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특별한 체험을 준비하는 전국의 동기회, 일반단체, 모임 여러분의 많은 참가바랍니다.

- 기 간 : 2022년 8월~12월
- 대 상 : 전국 초, 중, 고 동기회, 일반 단체, 회사, 모임
- 프로그램
 - 그때 그 시절 교복을 착용하고, 셀프로 기념촬영
 - 임시 담임선생님과 함께 옛 수학여행지 탐방
 - 제기차기, 딱지치기, 윷놀이 등 추억의 놀이
 - 하이라이트는 역시 석식 만찬과 여흥
- 참가비용 : 100,000~120,000원(1인/1박 2일)
 - 참가비용은 동기회와 협의 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라문화원 제공(경상북도, 경주시 후원)
 - 해설사, 플래카드, 음향시스템(1박2일 이상 시 제공)
 - 동복,하복 男 200벌(95~120) 女 300벌(44~99) 비치

2011
신라문화원의 별 수상
관광포럼터에 부문

주최 (사)신라문화원 | 후원 경상북도·경주시

신라문화원 경북 경주시 태종로727번길 3(노서동) Tel. (054)777-1950 www.silla.or.kr



영양조명전기와 ㈜나라는 28일 영양 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각 5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기준 영양조명전기 대표와 황경모 ㈜나라 대표는 “지역민들과 생업을 함께 하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만큼 조금씩이나마 베풀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영양군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오도창 군수는 “뜻깊은 성금을 기탁해 주신 김기준·황경모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금은 정성을 담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잘 쓰이도록 하겠다”는 감사를 전했다.

기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고령 우곡면, 한뜻으로 나눔 '동참'



고령군 우곡면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개인·기업·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성금 및 성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어 희망2023나눔캠페인이 활기를 띠고 있다.

우곡면 노인회가 면사무소를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한 것에 이어 우곡면 자율방범대 50만원, 우곡면 발전위원회 31만2000원, 찰전업농 우곡면회 50만원, 민족통일 경북도협회의 30만원, ㈜현등개발 100만원, 우곡 제일교회 신도 일동 120만원을 기탁했다.

사촌리 부녀회 10만원, 답곡1리 경로회 할머니회 10만원, 사촌리 이순이씨 10만원, 예곡리 박삼호씨 20만원 등 우곡면 내 각 마을 주민들도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또한 우곡면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성금 20만원과 함께 쌀, 떡국 200kg를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들꽃마을, 저소득 가구 등에 전달했다.

우곡중 제13회 동기회에서는 라면 100박스를 기탁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이 계속되고 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영주 MZ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 ‘새바람’

Y-주니어보드 우수팀 시상 세대·조직의 벽 허물며 소통

영주시는 28일 ‘Y-주니어보드’ 우수활동 4팀(최우수 1·우수 1·장려 2)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조직 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도모를 위해 7급 이하 20·30세대 직원 16명으로 구성된 조직문화 혁신 동아리 ‘Y-주니어보드’를 운영해 왔다.

Y-주니어보드는 창의적인 연구 활동부터 조직문화 선진기업 견학, ‘조직문화 혁신, 이렇게 실천해요!’ 포스터 제작·배부, 조직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슬기로운 조직생활’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시는 4개 팀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우수활동 팀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OMZ’ 팀은 조직 내 세대 갈등을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같은 세대’라는 마인드로 받아들이며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티타임 등 소통의 기회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요즘것들’ 팀은 촉박한 인수인계 방식 해결을 위해

인수인계서 상시 작성 및 우수공무원 선정·시상,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수인계 기간 의무 부여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슈퍼주니어’ 팀과 ‘라떼는커피다’ 팀은 각각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축 및 유연근무 관련 평가지표

제작, 상생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 대행자의 업무 숙지 매뉴얼 개발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박남서 시장은 “앞으로도 대화 시간을 마련해 젊은 공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영천장학회에 날아든 인재 육성 후원 ‘돈돈’

(재)영천시장학회는 28일 △별사랑봉사회 300만원 △영천축산업협동조합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

별사랑봉사회는 지난 2008년 결성돼 지역의 어려운 곳을 찾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봉사활동 모임으로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총기탁 금액은 3030만원에 이른다.

영천축산업협동조합은 지역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실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이번까지 총 97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최기문 이사장은 “학생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영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경주소방 남·여의용소방대연합, 성금 기탁



경주소방서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는 28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하경태·표덕자 연합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창완 서장은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김천 코오롱 노동조합, 이웃에 전하는 선물



김천시 코오롱플라스틱 노동조합과 코오롱바스프이노폼 노동조합은 28일 양금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해 쌀(10kg) 40포대과 라면 20박스를 기탁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고 따

뜻한 손길이 닿아 우리 사회가 더욱더 따뜻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경근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훈훈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광수 기자kgs514@naver.com

김경돈 교수, 치료봉사 표창 ‘3관왕’

대구보건대학교는 28일 김경돈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지역사회 물리치료 발전과 물리치료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시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일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동문회장 표창, 20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표창에 이어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 전공 봉사활동과 물리치료 및 보건 의료 분야 연구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수한 보건 의료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경돈 교수는 “지역사회 내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자와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보건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물리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혜원성모병원 ‘따뜻한 겨울 되세요’



철곡군 혜원성모병원은 29일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돕기 성금 221만원을 철곡군 약북면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병원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됐다.

장기홍 이사장은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렬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지역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으로부터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혜원성모병원은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참여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송홍달 기자song081700@naver.com

지금_나_여기 # 문경_여행중

계곡 # 캠핑에 빠진다

www.gbmj.go.kr/tour

■ 칼 럼

청년이 미래다(上)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청년’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단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 저린 용어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청년을 앞세우고 청년층을 겨냥한 슬로건과 공약을 발표한다. 언론에서도, 학계에서도 청년 관련 이슈는 단골 주제다.

우리 사회의 메인 토픽이 된 청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처음 ‘청년’이란 용어를 사용했을까? 청년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는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인 일제강점기다. 우리 민족의 푸르른 내일을 꿈꿨던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청년(靑年)’이라 불렀고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힘썼다.

지난 1920~1921년 두해에만 1300여개의 청년회가 생겨났다.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의거 이틀 전 ‘청년제군에게’라는 유촉(遺囑)시를 남기기도 했다. 청년이란 말은 그 태생부터 희망과 새 시대의 메시지를 담은 용어였다.

오늘날에도 역시 청년이 희망이고 이들이 살아날 때 밝은 미래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두 해전 청년기본법을 제정했고 관련 입법을 늘려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120대 국정과제에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다리를 놓겠다’며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제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지만 청년들이 이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옛 속담처럼 지금까지 청년을 위한다는 구호는 떠들썩했지만, 장밋빛 약속은 공약(空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새 정부가 지난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청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 정책에 있어 선진화를 이룬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고 그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는 핀란드와 독일이다.

핀란드는 일찍이 지난 1972년 청년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든 이래 2006년 기본법으로서 청년법(Youth Act)을 제정했다. 핀란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2015년 헬싱키에서 시작된 ‘오흐야모(Ohjaamo) 프로젝트’다. 오흐야모는 ‘조종실’을 뜻하는 핀란드어로 청년이 자신의 커리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오흐야모센터는 취·창업 관련 서비스, 주거·보건 복지·스포츠·금융 서비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한 상담, 교육컨설팅,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센터 운영은 성공적이었고 출범 4년 만에 전국 60여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9년 한해에만 총방문 횟수 15만6000여회를 넘어서며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60호에 계속

■ 기 고

문경 연가 ‘문희(聞喜)의 노래’ (下)

이만유
전 문경문화원 이사



2158호에 이어= 이 시인은 “지금은 지방화 시대, 글로컬리즘(glocalism, 세계화와 지역화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용어)의 시대다. ‘지역 중심의 세계화’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지역 문인들의 문학 활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의 특수한 고유성에 객관적 보편성을 더할 때 진정한 의미의 명작이 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이만유 시인의 지역 문화운동에 기반을 둔 문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창작 활동은 예사롭지 않은 족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다.

시집을 내고 난 뒤 밤새워 읽었다. 며칠 동안 끝까지 다 읽었다. 문경을 주제로 한 시집답게 이 시집이 문경이다. 문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카페에 올리고 독후감 쓸게요.
문경 관련 책을 내는데 詩를 사용해도 될까요.
저도 고향이 문경이라 마치 고향 속에 있는 듯합니다. 두고두고 잘 감상하겠습니다.
덕분에 문경에 대해 추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느 시와 달리 술술 잘 읽혀서 좋았고 문경 사투리도 간간이 눈에 띄어 정겨웠습니다.
저의 고향 문경을 이토록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게 받아 적어주셨네요. 언제 한번 뵙도록 하지요.
고향 문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담긴 좋은 책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시집 연휴를 즐겁게 합니다. 제 고향 문경을 다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어 참 멋진 시집입니다.
마스크로 뒤덮인 우울한 나날 속에서도 ‘신선한 열정’으로 서정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시고 시의 참모습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주옥같은 시편들로 하여 저의 나날이 더불어 즐거워지겠습니다.
진정한 문경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멋진 시인님의 아름다운 시집을 받아봅니다. 너무 멋져요. 독후감 쓸게요.

특히 문경 출신 ‘한민족독도사관학교 관장’이며 ‘독도 시인 천숙녀 시인’께서 ‘문희(聞喜)의 노래’ 시집에 실린 모든 시를 ‘꽃꽃 시화’로 만들어 코팅해 보내주셨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서 시집을 읽고 소감과 격려 말씀을 보내주셔서 부담을 가졌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시집 출판을 후회하지 않게 됐다.

시집 ‘문희(聞喜)의 노래’를 내고 이만유 전 문경문인협회 회장

내 시집 보냈더니 이런저런 인사말 중 “술술 잘 읽히는 시 그래서 좋았어요.”가만히 생각해보니 칭찬인 듯 아닌 듯

특별히 주목받는 명작은 못 되지만 어려운 시 사양하고 짧게 쉽게 재미있게 그렇게 쓰자 했는데 그러저럭 뜻대로

나무에 바람 스치듯 쉽게 쉽게 읽히지만 시루에 물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가슴속 여운이 남는 그런 시가 됐으면

■ 사 설

다양해진 북한의 도발 국민들 안심해도 되나

올 1월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1년 내내 각종 도발을 이어 온 북한이 연말엔 무인기를 날려보내며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새해에도 저강도와 고강도 도발 카드를 섞어 쓰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개발 시험 및 실패 사례 포함)을 비롯해 총 30여차례에 걸쳐 6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였다.

북한은 특히 올 하반기 ‘핵무력 법제화’ 뒤엔 미사일 발사 외에도 전투기·폭격기를 동원한 공중무력시위와 ‘해상완충구역’(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군사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동·서해 접경지 일대 구역)을 향한 포격 등으로 대남 도발 양상을 다양화했다.

지난 26일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군 당국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들어온 사실이 군 당국에 공식 확인된 건 지난 2017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상대적으로 기동성 확보가 어려운 겨울철을 맞아 미사일 발사 등의 직접적인 무력 도발은 일시 중단한 채 이른바 ‘회색지대’(Gray Zone) 도발 전략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 피로도를 높이려 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이 ‘저비용·고효율’ 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우리 측 대비태세의 취약 부분을 계속 파고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실제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이번 영공 침범 대응과정에서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육군 공격헬기와 공군 전투기·경공격기 등 전력을 20여대나 투입했으나 5대의 무인기 중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이들 무인기 가운데 최소 1대는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까지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27일과 28일엔 군 레이더를 통해 전방 지역에서 미상 항적이 탐지돼 전투기·헬기 등을 출격했지만 각각 새떼와 ‘풍선’ 형상 물체로 확인된 일도 있었다.

소식통은 “레이더상에선 소형 무인기와 새떼 등의 움직임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군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북한은 이 같은 도발을 벌이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정치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무인기를 내려보낸 다음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더욱 격양되고 확산성 있는 투쟁 방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관계 원적과 남측을 겨냥한 ‘대적투쟁 방향’도 명시해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높여나간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의 어떤 도발도 초기에 격퇴할 수 있도록 안보체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안보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빨리 안심시켜야 경제 회복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행·편집인 이 승 협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 제 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 부	<구내>1006	경 정 부	<구내>1008 F A X (054)748-3663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5(동원동)백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원/1부당 30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2023 계묘년(癸卯年)

해룡일출축제

- 일 시: 전야제 - 2022.12.31(토) 20:00
일출제 - 2023. 1. 1(일) 06:30

- 장 소: 경주 문무대왕릉 해변 특설무대

주최

경상북도, 경주시

주관

경상투데이

후원

경상투데이 운영위원회, 삼오종합식품(주)